

# 신체이미지 · 자아 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

송경자\* · 김재숙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미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다른 편이면서도 건강미가 있는 체형이 선호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신에 대한 신체·외모평가가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에 의해 특정 이미지를 강요 받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강요 당하기도 하며 타인과의 비교 결과에 따라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의 감정이 증가되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다이어트, 운동, 성형수술 등으로 신체나 외모를 향상시키려고 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복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배경으로 1) 신체이미지의 태도적 측정과 지각적 측정을 통해 사춘기 후기 집단의 신체이미지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고, 2)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3)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survey와 준 실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법과 Image Marking Procedure를 이용한 신체너비 계측에 의하였다. 피험자는 17~21세의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생 137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설문지의 자료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  $\alpha$ , 요인도출을 위한 요인분석, 도출된 요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성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하였다.

계측에 따른 분석은 얼굴과 어깨의 왜곡 정도를 알아보고 신체충실지수를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인 분석한 결과 신체이미지는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의복행동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인 분석한 결과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라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과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으로 의복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한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라서는 얼굴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한 집단이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깨너비는 실제보다 크게 왜곡한

집단이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행관심과 동조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유행에 관심이 적었으며 동조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적 신체이미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신체에는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적 신체이미지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얼굴을 더 크게 왜곡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자가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나, 심리적 의복의 존성이나 동조성, 과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행관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신체충실지수가 높은 집단 즉, 비만한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피험자 대부분은 신체충실지수가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그들의 신체이미지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자신의 실제적인 신체보다, 생각하고 있는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지지한다.